

해피밀 시즌 4-6호를 발간하며, 주님이 주신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해피밀을
끝으로 시즌 4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고, 또 어
떤 때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면서 선교여
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귓가
에도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들에게만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은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성령께
서 우리 안에도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
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한 제자들
의 삶과 일치되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
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이를 위
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으로 사망으로부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제는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함께 기도하
는 공동체를 꿈꿉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역경을 이겨냅
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서로를 격려합시
다.

2025년 10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which appears to read 'Paul Jung'.

**행 24:24-27**

이리 저리 휩쓸려도

24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5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7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해피인사이드**이동원 목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은 세상 권력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의 총독은 바울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름은 너무나도 사사로운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의 구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을 불렀고, 그는 이후에 바울을 통해 돈을 받을까 하여 계속해서 부릅니다(혹시나 바울의 추종자들이 자신에게 뇌물을 주어 바울을 구금해제 시켜줄까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매우 극심하게 반대하였고, 그러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이사랴에 구금해 두었던 것입니다. 무려 2년 동안 바울은 구금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바울은 세상의 권력 앞에 휘둘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폭풍 속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배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세상의 권력에 휩쓸리는 것 같아 보이나,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의 권세에 좌지우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25절 말씀인데, 주로 '의', '절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벨릭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벨릭스는 매우 비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본래 시리아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드루실라의 미모에 반해서 마술사 아토모스를 이용해 그녀를 꺾어냈고, 결혼 생활을 파탄 내었습니다. 벨릭스는 매우 비윤리적인 스캔들로 드루실라를 취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벨릭스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했고, 또한 '절제'가 필요하다 권면했으며, 그렇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의 두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벨릭스는 자신의 비윤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해임되고, 베스도가 다음 소임을 이어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력에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의, 절제, 심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휩쓸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옛날 노아의 방주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권세 아래 놓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의와 심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요즘 나를 좌지우지 하는 세상 권세는 어떤 것인가요?
2. 그러한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행 20:22-24

타인의 마음과 습관

1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삼 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새 3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4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5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권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주권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롭게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베스도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베스도의 '호의'를 이용하여 바울을 가이사랴(행정수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력한 자들로 하여금 함께 가이사랴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NAC 주석에서는 그의 이러한 동기를 그가 귀찮았기 때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선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주권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치는 범위는 사람의 세세한 마음과 습관까지 관여하십니다. 베스도에게 '호의'의 마음을 주지 않으심과, 그가 '귀찮아함'조차도 하나님이 손길은 관여하고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베스도의 '호의'를 사서 자신의 작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가 바울의 삶과 그를 통해 이루실 그분의 계획에 있기에, 사람의 호의는 도무지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호의'가 있기에 그분은 열심을 다하셔서 각 사람의 작은 습관하나 이용하십니다. 베스도의 '귀찮음',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과 작정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잃은 양을 찾기 원하시고,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휩쓸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 진리와 심판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마음과 습관이 참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우리의 직장 상사이거나, 나의 거취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고 사람은 너무나도 관습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변칙적인 결정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그의 습관까지 통치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욱 든든한 마음으로 타인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최근 불편했던 타인(직장상사)의 마음과 습관이 있으신가요?
2.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타인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행 25:6-12

예비하신 은혜

6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팔 일 혹은 십 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8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많은 바둑 기사들은 몇 수 앞을 먼저 보며 형국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 또한 예비하신 은혜가 나타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베스도 이전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애를 썼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심리를 미루고 미루며 일부러 가이사랴에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벨릭스가 해임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당신의 부르심(이방인 왕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을 이루기 위해 벨릭스를 해임시키고 베스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베스도는 비교적(?) 정의를 추구하는 윤리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는 귀찮아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호의를 사고자 하는 기울어진 추가 있었지만, 적어도 로마의 법 안에서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인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출생과 가문의 영향력으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결코 한 민족에 의해 사사롭게 판결되거나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 법에 근거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의 행정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고(11절)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 제국의 통치자에게 복음을 전한 길을 이미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에는 '프로보카티오(provocatio)'라는 권리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확립된 시민의 일반적인 권리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억울한 재판과 누명에 쓰이지 않기 위해 시민들에게 주는 '항소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형성된 나의 됴됨이도 그분의 예비하신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몇 수 앞이 아니라, 전체를 아시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각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들을 맞추사 또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사회 시스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
2. 나의 삶에 형성하신 다양한 조각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실지 기대해봅시다.



**행 24:13-22****업무처리 잘 하셨나요?**

13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14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15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16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17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해피인사이드**이동완 목사**

사도행전 23-24장까지의 이야기에는 업무처리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아그립바 왕이 베스도를 방문하는 것은 의례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을 때, 왕이 방문하는 것은 중요한 회무절차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베스도는 아그립바 왕이 왔을 때에 자문을 구하여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고자 하였습니다.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때에 아무 내용도 없이 상소할 수는 없었고, 그는 이제 신임 총독이다 보니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까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그립바 왕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26-27절).

참 많은 사람들이 업무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무처리 물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처리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립바라고 하는 왕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업무처리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방부의 업무처리를 통해 징병받아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는 단순히 업무성취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사용하십니다.

직장에서 오늘 내가 감당하는 업무처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타인들의 수많은 업무처리도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맡은 바 업무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오늘 어떤 업무처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하셨나요?
2. 오늘 나의 업무처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도합니다.



**행 25:23-27****전도의 능력**

23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24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 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25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어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

해피인사이드**이동완 목사**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하셨습니다(열 가지 재앙의 각각은 모두 이집트에서 숭배하는 신들에 대한 심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진정한 왕, 진정한 위엄,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당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수많은 고위 관직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23절의 서술에서 당시 로마제국 전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왕과 총독 그리고 천부장과 시중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표현은 로마제국의 피라미드 형식의 권력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서는 바울을 통해 이 로마제국 전체에 진정한 왕,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담대히 선포하실 것입니다(앞으로 다가올 26장은 그러한 바울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매우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먼저 당시 로마사회는 종교다원주의적 국가였습니다. 수많은 지방신, 지역신들이 자신의 로마제국의 피라미드 구조를 흔들려 트리지 않는 이상 존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일하신 구원자, 참되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니제이 굽타의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에서 유일하신 구주, 진정한 왕에 대한 선포는 매우 위험한 이야기였으며, 이상한 소리였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 그러한 이상한 종교 기독교가 그의 입술을 통해 로마제국 전체와 그들의 세계관, 신관에 강력히 선포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 당시에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도'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도를 전하다)' 속에 담긴 도는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특히 로마제국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대신 죽으셨으며,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라는 너무나도 낯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저 옛날 이집트에 일어났던 열 가지 재앙 못지않은 삶입니다. 우리의 입술, 주를 향한 고백, 삶의 전도는 현대사회의 수많은 맘몬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내가 전도하는 곳의 문화와 분위기는 어떻나요?
2.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아동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24:13-22> 읽기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 다 함께 읽어보아요. 읽으며 기억에 남는 단어는 아래
빙고칸에 채워보아요.

2. 10월 9일 해피밀을 읽고 가정과 함께 나눌 말씀을 미리 준비해주시고, 말씀을 나누어주세요.
 3.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맡겨주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4. 나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까요?
 5. 부모님께서 미리 기도문을 준비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쳐주세요.
- ** 아래의 빈 칸에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A blank sheet of graph paper with a light blue grid pattern. The paper has a yellow border on the top, bottom, and right sides. On the left side, there are two black binder rings. The grid consists of 20 columns and 15 rows.



행 26:1-5

신앙을 변호하다

1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2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3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4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5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해피인사이드

김동완 목사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변명이라고 표현하니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의미와 달리 오늘날에는 변명이라는 말을 핑계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를 "**ἀπολογία(아폴로게오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으로 추정되는 고발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가 말하는 내용과 자세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권력자 앞에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자세로 나아가지 않았고, 거짓된 내용 앞에 분개하며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 또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변호하지도 않았습니. 오히려 그는 아그립바 왕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겸손하고 진실한 자세로 변호하였습니다.

아그립바 왕은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현재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언해 왔던 진정한 구세주가 오셨으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모습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부활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억울한 재판에 놓여있을 때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교회들을 찾아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겸손하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코 강압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과 타인 모두 복음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시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과, 겸손한 자세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던 지혜자께서 어리석은 우리의 언어에 맞춰서 귀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억울한 상황과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신자의 영원한 대변자가 되어 주십니다. 누구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며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해피인플루언서

1. 바울은 아그립바 왕을 어떤 자세로 대했나요?
2. 바울의 변호와 예수님의 변호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행 26:15-18

새로운 정체성

15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해피인사이드

김동완 목사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변호합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사울은 신자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태양보다 강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만약에 여러분께서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제 핍박받는 것은 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목을 언급하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사울은 더 이상 그분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그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체성은 그 삶의 모습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교사 역시 잘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는 신자 곧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에게 사명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종과 증인으로 세우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체성은 **"주님과의 관계"**에 기반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멀어진 성도님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많은 죄를 지으며 살던 때에도, 감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정체성을 주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복음을 증거 하며 살아갑시다.

해피인플루언서

1. 주님은 사울에게 어떤 목적으로 다가갔나요?
2.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행 26:19-23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9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20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21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해피인사이드

김동완 목사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 유대와 이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분개하거나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에 속한 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도 충분하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 회개가 아니라 분개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신자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신자들은 주님께 나아가 많은 것을 구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도 선한 것으로 주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주님 앞에 참 많은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구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평안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 지역 사회,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늘 선하게 응답하곤 하셨습니다. 제가 기대하던 상황보다 더욱 좋은 결과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럴 마음으로 넘쳐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일도, 회개를 허락하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연휴 기간에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의 선한 성품과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혹 죄의 유혹과 핍박 앞에 무너진 분들이 계신가요? 주님은 여러분의 회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우시어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고 고백하나요?
2.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행 26:24-28****내가 미쳤도다**

24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6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27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해피인사이드**김동완 목사**

바울의 변호가 끝났습니다. 그는 겸손하면서도 분명하고 힘 있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듣는 이들을 전도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베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울을 향해 소리 지르며 네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로마 신을 모두 우상으로 취급하는 일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두 정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베스도에게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아그립바를 향해서는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립바는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아그립바의 이해에 맞춰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그립바가 처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바울의 눈에 아그립바는 로마에서 온 관료이므로 황제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친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립바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신 고백하기로 결정합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하지만 아그립바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바울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죄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바울은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서, 자신도 무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립바는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로마로 가서 황제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님 중에는 그 순간이 지금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의 무고함과 상관없이 죄의 무거운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때 말입니다.

주님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심판하려 했지만 그분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무고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 고난을 겪어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면 예전처럼 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미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Q. 베스도와 아그립바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Q.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와 우리의 불완전한 자기 의 중에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친절과 환대

행 27:1-3

1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2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 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3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기를 허락하더니

해피인사이드

김동완 목사

이제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기에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에 올랐고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를 맡은 사람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까지 나아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죄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척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F.F 브루스는 **"신약에서 백부장들이 한결 같이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호의로 바울은 친구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며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친구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설명하진 않습니다. 학자들은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흠어졌던 기독교 공동체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지금 바울이 받는 친절과 환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과거에 기독교 신앙을 핍박했고, 이제는 로마의 신앙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배려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바울에게 친절과 환대를 베풀고 있는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바울은 도무지 죄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죄가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죄수로 취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절과 환대 속에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하물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와 같이 대하여 주시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대하여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도 신앙의 형제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친절과 환대 안에서 한결 같이 좋은 신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바울은 누구로부터 친절을 얻었나요?
2.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친절과 환대의 경험들을 기억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미니홈피

사도행전 27장 1-3절 미션

1. 암송하기

- 1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 2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 3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기를 허락하더니

2. 묵상하기

- 1) 백부장과 기독교 공동체는 왜 바울에게 친절과 환대를 베풀었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친절과 환대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3. 기도하기

말씀을 읽고 느낀 점과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행 27:9-12

손바닥 보듯 뻔한데...

9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뵈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뵈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손바닥 보듯 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칠지, 무엇이 위험할지 부모님은 손바닥 보듯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똥인지 된장인지 짚어먹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비해 부모님은 많은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의 길은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 항해는 시간이 지나 금식하는 절기를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10월 5일경)로서 곧 겨울이었습니다. 항해하기 좋은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로 너울이 높은 바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으로 이 바다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 번이나 난파를 당했고, 하루 종일 바다에 떠다니기도 했습니다(고후 11:25).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10절의 내용처럼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 지금 이 상황은 '손바닥 보듯 뻔한' 것일까요? 아마 그의 경험에 빗대어 이런 충고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배의 주권이 있는 백부장은 사도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미항보다 뵈닉스항으로 이동하여 겨울을 보내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견은 다른 사람들과부터 묵살당했습니다. 의견을 묵살당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백부장이 친절하게 대해줬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한 사람일 뿐이고, 현재 아무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전조증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역경, 어둠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너머에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배는 결국 폭풍을 만나고 부서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거부했던 이들은 사도 바울과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했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손바닥 보듯 뻔한' 일이었는데 그들은 결국 맛을 보고서야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쓴 맛을 보고서야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손바닥 보듯 뻔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던 적이 있나요?
2.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우리를 보며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행 27:13-26

그들의 뜻을 이론 줄 알고

13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론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갖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타로를 본다든가, 점괘를 본다든가, 운세를 확인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놀라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시대보다 더욱 발전한 우리 시대에는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 지식과 이성을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일들 앞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로마로 향하고 있던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항해를 하기로 결심합니다(11절). 바울이 그들을 말렸지만, 백부장은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의 주장이 비전문가의 주장보다 신뢰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주장을 뒤로하고 여행을 지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뜻을 이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발전된 과학, 의학, 기술 등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전된 것에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단일 뿐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바울은 21절에서 자신의 주장이 묵살되었음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비아냥이나 조롱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상기시키며 이 모든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상삼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인생의 문제들이 나의 뜻대로 잘 풀리고 있다는 확신 혹은 착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2. 결국엔 잘 풀리지 않게 되어 실망하거나 낙심했던 적도 있나요?





행 27:27-38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27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28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가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29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30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33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이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하며 바울의 주장을 무시했지만, 큰 광풍 앞에 그들의 모든 것들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해와 별도 보이지 못하고 구원을 향한 여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의 담대한 말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구원을 향한 여망과 신뢰를 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또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을 하고자 했습니다. 배가 육지로 가까워지는 김새가 보이자 닻을 내리는 체하며 거룻배(나룻배 일종)를 내리고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선원들은 바다에 능통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배를 버리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보다 더 좋은 때를 알고 있었고 그때를 위하여 선원들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백부장과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었고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14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땅이 언제 나타날지 몰랐기 때문에 음식을 아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음식을 먹도록 권했습니다. 너희의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며 확신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배에는 265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모든 음식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대단한 신뢰였습니다. 14일 동안 음식을 아꼈지만 힘을 얻기 위해 아끼지 않고 먹는 것도, 언제 도착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음식을 바다에 버리는 것도 모두 신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섭리하심을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이 무시받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러한 비극적 상황 가운데에 신뢰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스토리는 사도 바울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지금 당장에 있는 상황들에 답답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앞에 믿음이 무너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주님을 놓을 정도로 힘든 상황과 형편이 있었나요?
2. 그때에 내가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한 사람

행 27:39-44

39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40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41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결매 이물은 부딪쳐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42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 한 명으로 인하여 벌을 면했던 적이 있나요? 분명 훈계를 받을만한
상황입니다. 훈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 덕분에 훈계를 면하게 됩니
다. 그 친구 한 명으로 인해 전체가 사면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로마로
호송 중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백부장도, 선주와 선장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주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른 선원들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
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결국 사도 바울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
들은 사도 바울의 리더십 가운데 배에서 탈출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스토리
이면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깨지고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니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목숨이 위태
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고, 확신을 얻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그 확신을 집어던지고 의심
하고 두려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습
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확신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
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백부장을 예비하사 그를 통해 죄수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전체를 보호했습니다. 이것
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자신의 직위를 걸고 이러
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
비하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단순히 건짐 받는 수준이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
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누군가 덕분에 유익을 얻은 적이 있나요?
2. 나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행 28:1-6****맞춤식 은혜**

1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3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5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 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

해피인사이드**포아론 목사**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배에 타고, 항해에 문제에 대하여 주장을 묵살당하고, 광풍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를 넘기고, 군인들의 선동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를 넘기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한단든지, 바다 위를 걷게 하는 기적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다 위에서 바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울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8장의 짧은 구절 속에는 여러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멜리데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원래 난파한 여행객들에게 동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들은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조된 이들이 무언가를 했다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동정을 베풀고 그들을 영접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평소와는 다르게 반응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뱀에 물렸으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붓든지, 갑자기 쓰러지든지,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물리면 죽는다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부수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니다. 사도 바울이 독에 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광풍과 군인들로부터 지키신 것처럼 뱀으로부터 지키시는 줄 믿습니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더욱 크고, 확장된 일들(죽장과 부족의 구원, 로마를 향한 복음 전진)을 진행하십니니다.

27장에서는 어느 기적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28장에서는 기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원주민들에게 기적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일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받았습니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죄와 저주에 매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든 은혜들 앞에 감사와 만족을 고백하시기 소망하십니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열해보세요.
2. 그 은혜에 만족하고 있나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장년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7-38절> 쓰기

27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저리 쫓겨가다가 자정 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28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29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30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33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34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6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이백칠십육 명이더라

38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행 28:7-10

계획에 없던 멜리데 섬

7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8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낮게 하매 9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자 그곳 원주민들을 바울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며, 이로써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바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리하여 보블리오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모셔와 친절히 영접하며 사흘 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의 일치처럼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었습니다. 이를 본 바울은 그에게 들어가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자 그의 병이 말끔하게 낫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게 되고, 보블리오의 가정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후 멜리데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와 고침을 받습니다. 이 귀한 사역은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석 달 동안 바울은 포함한 276명의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극진히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육신 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모든 마음과 온몸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대접하는 자와 대접받는 자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석 달 후 이들이 다시 로마로 출발할 때 이후 이들이 필요한 모든 식량과 도구와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받게 되는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유라굴로 풍랑으로 인하여 로마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히고 여정에 필요한 모든 물품도 다 잃게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절한 휴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품도 공급해 주셨으며, 멜리데 원주민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분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로마로 바로 가지 못하고 계획에 없던 멜리데 섬에 우연히 도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입니다. 조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내 인생에서 나의 계획에는 없었던 멜리데 섬은 어디인가요? 혹시 조금해 하고 계신가요?
2.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행 28:11-15

위로가 절실한 타이밍

11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 오스구로라 12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 그 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 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멜리데 섬에 상륙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곳에서 석 달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지나자 다시 항해하기에 적합한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바울은 일행과 함께 다시 로마로 출발합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은 해로를 거쳐 육로로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바울은 이러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는 귀한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서신서마다 언급하는 동역자들의 수를 모아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마다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머물며 그를 위로하였으며, 이제 그가 로마에 거집 도착하려고 하자 그의 동역자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를 환영하러 나오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으며, 죄인은 아니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서 호송되어 가는 중이었기에 그에게는 위로가 절실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귀한 이유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지치고 힘들 때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를 앞두고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이고,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통해 그는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동역의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수용함을 통해 좋은 동역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좋은 동역의 관계를 위하여 오늘도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향해 평가나 판단보다는 함께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존중하신다면 진심은 반드시 전달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나에게 위로가 가장 절실할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2. 내 주변에는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행 28:16-22**

나에게 주신 이유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7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8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यो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해피인사이드**전보아스 목사**

바울의 마지막 사명지는 로마입니다. 비록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로마에서 조금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게 됩니다. 감옥 감금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죠. 어찌 보면 바울이 잘나서,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잘 행동해 왔기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잘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며, 로마로 호송되는 그간의 여정을 보면서 로마 백 부장이 사도바울의 모든 성품과, 리더십을 좋게 보고 그를 모범죄수 정도로 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입니다. 마지막 사명지인 로마에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고 정돈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곧바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그에게 청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곧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와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수없이 그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닌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족이 그를 반대하든 혹은 핍박하든 그는 상관하지 않고, 어찌 보면 그리 효과적인 복음전도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시간을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2.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진정한 주인 앞에서 모든 것을 정산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끄럼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날을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행 28:23-29****여전히 전파된 복음**

23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4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해피인사이드**전보아스 목사**

무엇을 하든 잘하는 집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방문객들이 고생하거나 헛걸음하지 않도록 예약제로 운영하기도 하죠.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인 바울의 처소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곳이 복음 맛집으로 소문이 나자 사람들은 날짜를 정하고 아침저녁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예약 없이 올 경우에는 마냥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구속되어 있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은 여전히 퍼져 나갔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어떠한 장벽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진짜 꽃에 벌이 찾아오듯이, 진짜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토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전하여졌듯이,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갖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 가운데 부흥이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24절)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긴 들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옛 사상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듣는 자의 태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은 지식이 많고 똑똑한 지성인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가까운 친인척 중에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에 안 나가는 분도 있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금된 바울을 통하여서도 로마 땅에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어떠한 장벽도 뚫고 강하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 복음을 거부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담대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가장 알맞은 때에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행 28:30-31****끝나지 않은 사도행전**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해피인사이드**전보아스 목사**

바울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그는 죄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택연금 수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30절에서 그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거침없다는 표현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수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이 모든 장벽을 뚫고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도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사람들은 그 복음과 함께 고난과 핍박의 장벽을 뚫어내며 세상과 이웃과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된다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상당히 틀린 말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포박당하며 재판판을 받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파선을 경험했습니다. 간신히 육지에 상륙했지만 거기서도 또 독사에 물려 죽을뻔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속삭입니다. 너무 늦었고, 다 틀렸으니 이제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그를 로마로 보내시겠다던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위기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과 축복의 기회로 역전시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내 인생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고 있으십니까?
2.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유아유치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28장> 색칠하기

사도행전 28장 30-31절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